

2025. 8. 2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8월 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대공원 동물원

동물기획과장	김흥현	500-7701
동물복지1과장	김세곤	500-7601
동물복지2과장	박용춘	500-7602
기획홍보과장	강준민	500-7005
관련 홈페이지	grandpark.seoul.go.kr	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3쪽

### 서울대공원, 여름철 폭염대응...동물들에 '수박·우족 등 여름 보양식 제공'

- 8.1.(금) 15곳 동물사, 호랑이 등 100여 종 동물에 여름 특식 총 920kg 제공
- 호랑이, 단백질, 비타민이 풍부한 보양식 제공, 하마, 수박통 속 과즙 제공
- 미어캣은 얼음 깔아 발은 시원하게, 생닭 매달아 먹이 풍부화 유도
- 오타리아점박이 물범은 메기 제공, 코끼리는 물속 사탕수수로 잠수행동 유도
- 서울대공원 "비타민,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식 급여(給與)로 동물의 건강한 여름나기 자속"

- 올해도 서울대공원은 무더위에 지친 동물들을 위해 여름나기 특별식을 제공한다.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우족과 닭고기, 수분과 영양이 가득한 과일과 채소를 동물별 식이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했다.
  - 호랑이가 있는 맹수사 등 15여 곳의 동물사에 총 920kg의 영양 가득한 특별식이 제공된다.
- 오타리아와 점박이 물범 등이 지내고 있는 해양관에서는 살아있는 메기를 제공한다. 살아있는 물고기를 쫓는 활동을 통해 활동성을 높이고 야생 본연의 사냥 행동을 유도한다.

- 맹수사에서는 시베리아 호랑이들에게는 전해질, 비타민 영양이 풍부한 얼음 케이크를 제공해 체온을 낮추고 수분을 보충해주며,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우족, 생닭 등 육류로 구성된 맞춤형 건강 보양식으로 영양을 보강한다.
  
- 다양한 연령대의 아시아코끼리 3마리가 생활하고 있는 대동물관에서는 코끼리전담반 사육사들이 커다란 수영장에 여름 특식인 사탕수수를 던져 주어 코끼리들이 가라앉은 먹이를 찾기 위해 시원한 물 속으로 잠수하는 등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야생의 습성을 유도한다.
  
- 하마들에게는 여름철 활력을 북돋아 주기 위해 수박 등 다양한 과일이 제공된다. 귀여운 소형 동물인 미어캣에게는 사육사들이 제작한 구조물에 생닭을 매달아 활발한 먹이 활동을 유도한다.
  
- 박진순 서울대공원 원장은 “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동물들도 기력이 많이 약해졌을 것이다. 이번 특별 영양식으로 동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날 수 있길 바란다.”면서 “앞으로도 다양한 먹이 풍부화를 통해 동물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.”고 말했다.

